

# 교복자율화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정 준 교 · 이 선 경\*

서남대학교 경영학과, \*서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 The Effect of Abolition of School Uniform on Personality

Jun-Gyo Jeong · Sungyung Lee\*

Dept. of Management, Seonam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Seonam University

(1999. 1. 4 접수)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abolition of school uniform on personality. The subjects were 317 boys(mean age : 18) and 312 girls(mean age : 18) in third grade of high school. Th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4 uniform high schools and 4 free-choice wearing clothes high school, in which were situated at north and south part of Han-River in Seoul. They were administered with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 creativity, individuality, self-efficacy, conformity of behaviour, conformity of attitud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Results indicated that (1) in many personality variables, there were no effect of abolition of school uniform on personality, (2) the effect of abolition of school uniform on personality must be considered in the moderator effect of the preferred clothes of student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and its implication and following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 abolition of school uniform, creativity, individuality, conformity, autonomy :  
교복자율화, 창의성, 개성, 동조성, 자율성

### I. 서 론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 가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창의성이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도출이나

기존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롭고 유용한 관점으로 개발하려는 활동(Lovelace, 1986)으로서, 20세기 중반까지는 외부로부터의 중재가 불가능한 개인의 천재성 또는 천부적인 영감으로 여겨져왔으나, 1950년 대부터 창의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시도된 이래 최근에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강덕구, 1996 ; 강소연, 1995)이 잇따르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국내외의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다양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방대육성과제 지원 연구비의 일부에 의해 연구되었음.

한편 창의성 또는 개성과 반대되는 개념인 동조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동조자들은 비동조자들보다 덜 창의적이고, 사회적 승인에 대한 욕구가 큰 반면, 비동조자들은 동조자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White와 Kernaleguen, 1971).

의복분야에서도 제복에 가까운 형태의 의복을 입는 청소년들이 성격면에서 더 동조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Gurel, Wilbur와 Gurel, 1972)와 동조적인 복식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대생들은 심미성, 창의성, 개성에 낮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Taylor(1967)의 주장을 고려할 때, 교복착용과 같은 극단적인 동조 행위는 창의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교복은 학생들의 자율과 자유보다는 질서와 복종심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와 같은 통제 위주의 교육은 타율적이고 소극적인 인격의 학생들을 배출하게 되었다(전병재, 198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대 들어 교육개혁을 실시하였고, 그 일환으로 1983년부터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교복자율화 조치는 자율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되었다(오덕렬, 1987).

그러나 이제까지의 교복자율화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성격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복자율화 조치가 성격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교복과 자유복의 의미

우리나라에서의 교복의 역사는 여학생의 경우 1886년 8월 3일 미국인 선교사 스크랜튼이 이화학당의 학생들에게 입힌 붉은 한복교복이 그 시초이며(정충량, 1967), 남학생의 경우는 1898년 배재학당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교복이 착용되었다(이규태, 1965).

1910년 한일합방 후 일본 정부의 학교 교육은 자율과 자유를 기본적인 교육 목표로 하지 않고 질서

와 복종심을 위주로 하는 운영을 해 왔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나 자율성의 표현보다는 획일성과 어떤 원칙에 입각한 통일된 체계성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제복을 입히게 되었다(전병재, 1984).

1945년 해방 이후부터 교복자율화 이전까지의 남학생의 교복은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당초의 일본군복스타일 그대로였고, 이는 곧 일제의 상징적 잔존으로 지적되어 그동안 교복과 두발자율화를 둘러싼 시비가 잦았다(조선일보, 1982. 1. 5). 또한 교복과 두발에 대한 규제는 외양의 획일화만이 아닌 인간의 의식을 획일화하는 조치이며, 학생의 의식을 속박한다는 것은 개인의 창의성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나아가 국민성애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황철수, 1982). 이에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1982년부터 두발자율화를, 1983년에는 복장을 자율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오덕렬, 1987).

교복자율화 이후에 연구된 이현우·김태영(1984)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 교복자율화로 자율성이 존중되고, 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간편성과 활동성이 증진되며, 책임감이 강화되고, 과도한 통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선행연구는 교복자율화가 이루어진 1983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졌으며, 교복착용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교복착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측면은 교복착용으로 인한 행동의 조심성, 생활의 차이가 나지 않음, 학생의 자부심, 경제성 등이었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측면은 과도한 학생신분의 노출, 미적 감각 및 개성의 결여, 비활동성 등이었다(김영인·강혜원, 1981). 또한 심소연·강혜원(1983)등의 연구에서는 교복자율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개성, 활동성, 해방감, 옷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점이고, 부정적 측면은 학생의 긍지를 나타낼 수 없고 옷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교복착용에 대한 찬성의 변화 추세를 보면 1973년 95%(최홍자, 1974), 1978년 70%(김경선 등, 1980), 1981년에 51%(김영인·강혜원), 교복자율화가 이루

어진 1983년에는 22%(심소연·강혜원)로 감소하다가 일부 학부모들의 교복착용 희망에 따라 문교부의 교복자율화 보완조치가 1985년 10월에 발표되어 학교장 재량으로 다시 교복착용이 허용된 1986년에는 49%로 증가하였고, 실제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중 80% 이상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교육청, 1993), 대체로 교복착용학생은 교복을, 자유복 착용학생은 자유복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이수희, 1988).

현재 착용하고 있는 통학복의 만족정도는 교복을 착용하는 여고생중 1988년에 66%가 착용하는 교복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이수희, 1988), 자유복을 착용하는 고교생중 1989년에 60.3%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써(김정희, 1990) 자유복에 대한 만족도가 교복에 대한 만족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한가지 덧붙일 것은 현재의 교복의 특징은 과거와는 달리 유행과 캐주얼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성미와 기능성을 갖춘 소재 및 디자인이 선택되고 있다는 점이다.(강혜원, 1995).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복과 성격특성과의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 2. 창의성

창의성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비교적 긴 심리학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창의성을 정의한 Guilford(1983)에 의하면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적 특성은 문제에 대한 민감성, 사고의 유창성, 사고의 융통성, 사고의 독창성, 사고의 정교성을 들 수 있으며, 그중에서 창의적 사고에 해당되는 특성은 사고의 유창성, 사고의 융통성, 사고의 독창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창의성을 성격적인 측면에서 보는 연구는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연구 결과 '경험측면에서 심미적 특성에 대한 높은 평가, 광범위한 관심, 복잡성에 대한 매력도, 높은 에너지, 독립적 판단력, 자율성, 직관, 자신감, 모순에 대한 해결능력과 자아

개념의 갈등상황을 수용하는 능력, 굳건한 자아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on과 Harrington, 1981).

위의 두가지 접근법을 종합해 볼 때 '창의성이란 인지적 능력과 성격특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고 가치있는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생산해 내고자 하는 자발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의성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복자율화와 관련지어보면 확일적으로 주어진 교복을 선택의 여지없이 기계적으로 다년간 매일 착용할 때보다는 매 순간 스스로 생각해 가며 자유복을 선택해 입을 때 자율성과 더불어 창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을 실제로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연구에 도입한 이수희(1988)는 자유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중 '창의성을 발달시키므로'라는 문항과 교복자율화로 인해 어떤 능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창의성 신장을 기할 수 있다'는 2문항을 사용하여 연구하였으나 연구결과 위의 두 문항에 응답한 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율성과 책임성

자율성이란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지각하고 자아를 행동과 주체로 인지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 통제하는 감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자기규제, 자기 책임, 자기 주장, 내적 통제, 내적 지식의 개념과 비슷하다(karpef, 1976).

교육개혁심의위원회(1986)는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은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개념이다. 외부로부터의 지시와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통제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율에는 반드시 충분한 자치능력과 아울러 자신의 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율성에서 자기결정이 하나의 권리행사라고 한다면 자기책임은 그에 수반되는 의무요, 부담으로 볼 수 있듯이 자율성에는 자기책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김종철, 1988).

이러한 자율성은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성장·발달과 학습의 과정에서 습득되고 성취되는 것이며, 자주의 정신, 자립의 의지, 자기효능감 등 일련의 정신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율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책임성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자발적인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행위자에게 추궁되는 의식, 책무, 제재를 말하며, 정신적 책임, 도덕적, 사회적 책임, 법률상의 책임이 포함된다(곽영우, 1988).

#### 4. 동조성과 개성

동조성이란 '실제 또는 가상의 집단압력, 즉 심리적 압력의 결과로서 집단이 기대하는대로 신념이나 행동이 변화하는 것'(Kiesler와 Kiesler, 1969)을 의미한다.

Deutsch와 Gerard(1955)는 동조를 유도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규범적 영향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일치하기를 바라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기대를 범하는 것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같은 종류의 동조적 행위는 개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타자에 동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 된다.

한편, 정보적 영향은 다른 사람의 영향이 자신에게 수단적으로 유용한 까닭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들이는 현상으로서, 이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며, 또한 타자에 대한 동조는 단지 타자를 하나의 유용한 안내자나 정보 제공자로서 이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동조성은 문화의 전달과 문명의 보존을 위한 견고한 바탕을 제공하고(Horn과 Gurel, 1981), 다른 사람들과 조화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Taylor, 1967),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니나, 진보와 사회적 다양성에 필수적인 창조적 상상과 활동들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Horn과 Gurel, 1981).

한편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행위 및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개성(Maslach, Stapp과 Santee, 1985)은 동조성과 상반된 성향으로 존재하여 실제로 개성주의자와 동조자는 성격과 행동성향(Crutchfield,

1955)에서 뿐만 아니라, 행동의 주동기(Fromkin, 1973)에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Crutchfield(1955)와 Fromkin(1973)의 연구에 의한 개성주의자와 동조자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개성주의자의 성격 및 행동성향은 자신감, 자존심, 미에 대한 흥미, 책임감이 높고, 행동의 주동기는 독특함 추구, 차별화 욕구, 창의성, 설정된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조자는 복종적, 인습적,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부족, 자발성 및 독창성 부족, 개인적 안정 추구, 사회적 위험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자신감(자기효능감)

자신감이란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확신성의 정도 또는 믿음이라 정의된다(Vealey, 1986). 자신감과 동의어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있는데(Weinberg, Gould, Yukelson과 Jacson, 1981),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conviction)을 묘사하는 말로서 상황적으로 구체적인 자신감을 의미한다(Vealey, 1986).

자신감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보면, 자신감은 믿음의 강도만 언급하지만 자기효능감은 믿음의 강도뿐 아니라 인지된 능력의 구체화된 수준까지 의미한다(전선훈, 1992).

자신감은 동조성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어떤 과제에 대해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피험자들이 집단의 압력에 덜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nyder, Mischel과 Lott, 1960), 그 이유를 Wiesenthal, Endler, Coward와 Edwards(1976)는 정보적 사회영향이 줄어 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유복의 착용년수에 따라 창의성, 개성, 동조성, 자율성, 책임감,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착용통학복 만족도와 창의성, 개성, 동조성, 자율성, 책임감,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창의성 :** 창의성은 '인지적 능력과 성격특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가치있는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생산해 내고자 하는 자발적인 과정'으로 정의하며, 최종인(1992)이 설계한 리커트형 5점척도 9문항을 예비조사한 후 신뢰도를 고려하여 얻은 5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창의성 척도의 신뢰도 검정결과  $\alpha=0.6922$ 이었다.

**개성 :** 개성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 주는 행위 및 특징'으로 정의하며, Maslach, Stapp과 Santee(1985)가 설계한 리커트형 5점척도 12문항을 예비조사한 후 신뢰도를 고려하여 얻은 8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개성 척도의 신뢰도 검정결과  $\alpha=0.7880$ 이었다.

**동조성 :** 동조성은 '실제 또는 가상의 집단압력, 즉 심리적 압력의 결과로서 집단이 기대하는대로 신념이나 행동이 변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태도 동조성은 이상로, 변창진과 진위교(1989)가 설계한 '예-아니오' 척도 35문항을 5점 척도로 수정하여 1차 예비조사한 후 27개 문항을 얻었고, 이를 다시 2차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5문항을 선택하여 질문하였다. 태도 동조성 척도의 신뢰도 검정결과  $\alpha=0.7880$ 이었다. 행동 동조성은 Strutton, Pelton과 Lumpkin(1995)이 설계한 5점척도 3문항을 예비조사한 후 2문항을 선택하여 질문하였다. 행동 동조성 척도의 신뢰도 검정결과  $\alpha=0.5196$ 이었다.

**자기효능감 :**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며, 차정은(1997)이 사용한 리커트형 5점척도 15문항을 예비조사한 후 15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검정결과  $\alpha=0.8131$ 이었다.

**자율성 :** 자율성은 '자신을 독립된 주체로 지각하고 자아를 행동의 주체로 인지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 통제하는 감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황응연(1996)이 설계한 '예-아니오' 척

도 30문항을 5점 척도로 수정하여 1차 예비조사한 후 19개 문항을 얻었고, 2차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5문항을 선택하여 질문하였다. 자율성 척도의 신뢰도 검정결과  $\alpha=0.7369$ 이었다.

**책임감 :** 책임감은 '어떤 자발적인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행위자에게 추궁되는 의식, 책무, 그리고 제재'로 정의하며, 이상로·변창진·진위교(1994)가 설계한 '예-아니오' 척도 35문항을 5점 척도로 수정하여 1차 예비조사한 후 26개 문항을 얻었고, 2차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9문항을 선택하여 질문하였다. 책임감 척도의 신뢰도 검정결과  $\alpha=0.7274$ 이었다.

그 외에도 현재의 통학복 종류를 묻는 1문항, 자유복 착용년수 1문항, 통학복으로 바람직한 복장종류를 묻는 1문항, 착용통학복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1문항 및 교복착용자에게는 방과 후 외출시 교복착용 정도를 묻는 1문항을 질문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학교소재지, 학교종류를 묻는 4문항을 포함시켰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교복과 자유복의 경험을 오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제까지의 교복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이라는 지역차이가 존재(김운희, 1990; 김정희, 1989)하므로, 연구자들은 교복과 자유복을 착용한 서울시내 인문계 남녀고등학교 8개를 지역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에서 임의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표본대상으로 선택된 학교는 아래의 <표 1>과 같으며, 8개 학교에 각각 80명씩 640명의 표본대상중 통계처리에 사용된 표본은 남학생 317명, 여학생 312명이었다.

<표 1> 표본대상

	강 남		강 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교 복	80(S고)	80(K고)	80(D고)	80(S고)
자유복	80(H고)	80(M고)	80(S고)	80(K고)

자료수집은 1998년 7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수업시간에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3. 자료분석

SPSS를 이용하여 각 척도별 응답에 관한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상관관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창의성, 개성, 동조성, 자기효능감, 자율성, 책임감에 대한 점수분포경향

전체 응답자의 창의성, 개성, 동조성, 자기효능감, 자율성, 책임감에 대한 점수분포경향을 살펴본 결과, 가능한 응답범위 1~5점에서, 창의성은 평균 3.14점(표준편차 .70), 개성은 2.53(.73), 동조성 중 태도 동

조는 2.76(.66), 행동 동조는 3.83(.77), 자기효능감은 3.42(.52), 자율성은 3.55(.49), 책임감은 2.96(.64), 착용통학복만족도는 3.12(1.16)으로서 이론적 평균값인 3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남녀학생의 창의성과 책임감 및 착용통학복만족도는 중간정도였고, 행동동조와 자기효능감, 자율성은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개성과 태도동조는 약간 낮은 편이었다.

2. 자유복 착용 년수가 창의성, 개성, 동조성, 자기효능감, 자율성,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

자유복 착용 년수가 창의성, 개성, 동조성, 자기효능감, 자율성,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복 착용기간과 성격특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2>와 같이, 교복착용여부와 선호하는 통학복의 종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서 상관관

<표 2> 자유복 착용기간과 성격특성간의 상관관계

변인	조사 대상	표본 크기	창의성	개성	행동동조성	태도동조성	자기효능감	자율성	책임감
	전체학생	543	-.0251/p=.560	-.0204/p=.635	-.0180/p=.675	-.0261/p=.544	.0100/p=.817	-.0016/p=.971	.0133/p=.756
	남자학생	264	-.0796/p=.197	-.0290/p=.638	-.0627/p=.394	-.0856/p=.165	.0671/p=.278	.0592/p=.338	.1168/p=.058
	여자학생	279	.0246/p=.683	-.0095/p=.875	.0731/p=.224	.0294/p=.624	-.0408/p=.497	-.0524/p=.383	-.0709/p=.238
착용통학복	교복착용 학생	277	-.0825/p=.171	-.1348/p=.025	.0588/p=.329	-.0993/p=.099	-.0289/p=.632	-.0490/p=.416	.0275/p=.649
	자유복착용 학생	266	.0391/p=.526	.0397/p=.519	-.0194/p=.753	.0101/p=.870	.0468/p=.447	-.0264/p=.668	-.0744/p=.226
선호통학복	교복선호 학생	250	.0124/p=.846	-.0504/p=.428	-.1426/p=.024	.0174/p=.784	.0480/p=.450	-.0330/p=.604	.0572/p=.368
	자유복선호 학생	136	-.0884/p=.306	-.0328/p=.705	.1088/p=.207	-.0651/p=.451	-.0688/p=.304	-.0468/p=.589	.0178/p=.837
	병행선호 학생	157	-.0491/p=.542	.1163/p=.147	.1308/p=.102	-.0525/p=.514	.0205/p=.799	.0123/p=.879	-.0416/p=.605

<표 3> 자유복 착용기간과 성격특성간의 상관관계(교복착용학교)

구분	표본 크기	창의성	개성	행동동조성	태도동조성	자기효능감	자율성	책임감
교복선호 학생	169	-.1509/p=.050	-.1637/p=.033	.0569/p=.462	-.0931/p=.228	-.0319/p=.680	-.0244/p=.753	.0987/p=.202
자유복선호 학생	36	-.0166/p=.923	-.0994/p=.564	-.2328/p=.172	-.3330/p=.047	-.2377/p=.163	-.3050/p=.071	-.4124/p=.012
병행선호 학생	72	-.0402/p=.737	-.1173/p=.327	.2665/p=.024	.1195/p=.317	.0592/p=.563	-.0033/p=.978	.1414/p=.236

계를 검증한 결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집단에서는 자유복 착용기간이 길수록 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p < 0.05$ ), 통학복으로 교복을 선호하는 학생집단에서는 자유복 착용기간이 길수록 행동동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가지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의 관계에서는 비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서 자유복 착용기간이 길수록 행동동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연구자의 예측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지만, 개성이 감소하는 결과는 예측과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3>에서 처럼 교복착용학교 학생들의 경우를 다시 한번 추가분석하여 보았다.

추가 분석한 <표 3>에서 교복착용학교에서 교복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자유복 착용기간이 길수록 창의성과 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유복선호학생과 병행선호학생은 각각 태도

동조성과 책임감의 감소 및, 행동동조성의 증가가 나타났다( $p < 0.05$ ). 교복선호학생들의 경우 자유복 착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창의성 및 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자유복을 선호하지 않고 또한 현재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자유복 착용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유복 선호학생들의 경우는 자유복 착용기간이 길수록 태도동조성과 책임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복과 자유복 병행선호학생들의 경우 행동동조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교복과 자유복 선호의 경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가분석 결과는 자유복착용기간으로 나타나는 자유복 착용경험의 효과가 교복과 자유복의 어느 것을 단순히 착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나타나기 보다는,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의 형태와 함께 어떤 복장을 통학복으로 더 선호하고 있는지에

<표 4> 자유복 착용정도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전체학생)

변인	성	자유복(0년)		자유복(3년)		자유복(6년)		F 값	유의도
		M	SD case	M	SD case	M	SD case		
창의성	남	3.20(.76)	/100	3.06(.70)	/139	3.02(.62)	/ 50	1.430	.241
	여	3.14(.63)	/116	3.02(.79)	/119	3.23(.62)	/ 56	1.822	.164
	전체	3.17(.69)	/216	3.04(.74)	/258	3.13(.63)	/106	1.947	.144
개성	남	2.54(.73)	/101	2.46(.67)	/142	2.52(.81)	/ 52	.353	.703
	여	2.59(.74)	/116	2.58(.86)	/118	2.53(.64)	/ 55	.107	.899
	전체	2.57(.73)	/217	2.52(.76)	/260	2.53(.73)	/107	.268	.765
행동동조성	남	3.88(.87)	/101	3.85(.77)	/140	3.87(.65)	/ 52	.044	.957
	여	3.66(.89)	/117	3.76(.79)	/119	3.73(.90)	/ 56	.372	.690
	전체	3.76(.88)	/218	3.81(.78)	/259	3.80(.79)	/108	.174	.840
태도동조성	남	2.76(.64)	/100	2.66(.62)	/139	2.62(.76)	/ 50	1.154	.317
	여	2.78(.65)	/115	2.87(.72)	/119	2.80(.61)	/ 53	.558	.573
	전체	2.77(.64)	/215	2.75(.67)	/258	2.71(.69)	/103	.270	.764
자기효능감	남	3.41(.56)	/ 96	3.40(.52)	/137	3.50(.45)	/ 51	.698	.498
	여	3.42(.53)	/116	3.43(.57)	/114	3.37(.47)	/ 55	.237	.790
	전체	3.42(.54)	/212	3.41(.54)	/251	3.43(.46)	/106	.049	.952
자율성	남	3.47(.55)	/ 95	3.53(.49)	/136	3.61(.45)	/ 49	1.301	.274
	여	3.58(.52)	/113	3.61(.53)	/117	3.50(.47)	/ 55	.890	.412
	전체	3.53(.53)	/208	3.57(.51)	/253	3.55(.46)	/104	.264	.768
책임감	남	2.82(.62)	/100	2.97(.59)	/139	3.02(.59)	/ 49	2.327	.099
	여	2.99(.65)	/116	3.06(.66)	/115	2.83(.59)	/ 55	2.418	.091
	전체	2.91(.64)	/216	3.01(.62)	/254	2.92(.59)	/104	1.683	.187

<표 5> 선호통학복에 따른 자유복 착용정도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집 단	변 인	성	자유복(0년)			자유복(3년)			자유복(6년)			F 값	유의도
			M	SD	case	M	SD	case	M	SD	case		
교복선호학생	태도동조성	남	2.86	(.65)	/ 50	2.74	(.68)	/ 53	2.30	(.54)	/ 12	3.600	.031
		여	2.87	(.62)	/ 91	2.91	(.78)	/ 53	2.56	(.59)	/ 17		
		전체	2.86	(.62)	/141	2.82	(.73)	/106	2.46	(.58)	/ 29		
병행선호학생	개성	남	2.58	(.68)	/ 27	2.49	(.66)	/ 35	3.13	(.72)	/ 11	3.779	.028
		여	2.82	(.78)	/ 24	2.54	(.89)	/ 43	2.52	(.63)	/ 24		
		전체	2.69	(.73)	/ 51	2.52	(.79)	/ 78	2.71	(.71)	/ 35		
병행선호학생	태도동조성	남	2.72	(.55)	/ 27	2.56	(.56)	/ 35	2.58	(.61)	/ 10	.634	.533
		여	2.46	(.69)	/ 23	2.86	(.73)	/ 43	2.97	(.63)	/ 23		
		전체	2.60	(.62)	/ 50	2.73	(.68)	/ 78	2.85	(.64)	/ 33		
											1.472	.233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4>에서와 같이 자유복 착용정도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유복 착용정도가 다른 3 집단 (0년, 3년, 6년)으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5>에서는 어떤 통학복을 더 선호하는지에 따라 추가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선호복장을 반영하지 않은 <표 4>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비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p < 0.05$ ). 이러한 분석내용은 0년과 6년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위의 <표 5>에서 처럼 교복선호학생 중 남학생들은 자유복의 착용기간이 길수록 태도동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복과 자유복 병행 선호학생 중 남학생들은 자유복의 착용기간이 길수록 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은 자유복의 착용기간이 길수록 태도동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p < 0.05$ ).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경우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의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본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삼은 7 개의 변인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남/여/ 전체의 총 21개 분석 중 4 개에서만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적 결과 중 자유복의 착용기간이 길수록 태도동조성이 감소하고 개성이 증가하는 것은 자유복 착용이 성격적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나, 자유복의 착용기간이 길수록 태도동조성이 증가하는 것은 그 반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혼돈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교복과 자유복을 병행하여 실시하자는 학생들의 경우, 교복의 영향(태도동조성 증가)과 자유복의 영향(개성의 증가)이 함께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자유복 착용기간을 0년과 6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통학복으로 교복을 착용하던 자유복을 착용하던 복장이 창의성, 개성, 동조성, 자기효능감, 자율성, 책임감 형성에 일부 제한된 부분에서만 영향을 미침과, 그 영향은 학생들의 선호하는 복장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복 및 자유복 착용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과거의 교복은 대부분 검정색이나 남색에 한정된 디자인을 사용하였으나, 교복자율화 이후 구교복과 자유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교복을 개발하여 착용하기 시작하였고(전경란, 1992), 과거와는 달리 유행과 캐주얼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성미를 갖춘 교복디자인이 선택되면서(강혜원, 1995) 과거의 전형적인 교복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교복도 요즘의 패션감각이 반영된, 교복이라기 보다는 자유복의 느낌이 강하여 교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본 조사연구에서도 교복착용학생과 자유복착용학생들의 착용통학복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자유복 착용자의 통학복 만족도가 교복착용자의 교복만족도



보다 높다는 이수희(1988), 김정희(1990)의 연구결과처럼 전체적으로는 자유복 착용학생들의 착용통학복 만족도가 교복착용학생들의 착용교복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 $p < 0.01$ , 표 6), 통학복으로 바람직한 복장종류를 조사한 결과, 세부적으로는 이수희(1988)의 결과처럼 교복선호학생들은 교복을 자유복보다 더 많이 착용하고 있었고, 자유복과 교복·자유복 병행선호 학생들은 자유복을 교복보다 더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p < 0.05$ , 표 7)과, 전체적으로는 자유복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4.6%(교복착용학생 13.2%, 자유복착용학생 36.1%), 교복과 자유복을 병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8.5%(교복착용학생 25.2%, 자유복착용학생 31.9%), 교복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6.9%(교복착용학생 61.5%, 자유복착용학생 31.9%)였다는 사실은 현재의 교복이 과거의 교복과는 또 다른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교복자율화 이전의 복장규율은 엄격하였으나 요즘의 교복착용에 관한 규율은 많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교복착용학생들에게도 자켓 안의 블라우스나 셔츠의 형태나 색상을 선택해 입을 수 있는 약간의 자율성이 부여되었고, 이러한 복장규제완화에 덧붙여 일부학생들은 학교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교복을 자신의 취향대로 변형시켜 입거나, 악세사리를 사용하거나 헤어스타일에 변형을 가하는 등 대용물 사용을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려고 한다. 이렇게 복장규범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복장행동들이 종전의 획

일적 교복의 특성을 어느정도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 같다.

세째, 현행 자유복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복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유복을 착용하는 학교에서도 상의의 경우 모자달린 상의, 옷깃이 없는 라운드형, 원색적 색상, 영문이 크게 쓰인 상의와, 하의의 경우 접히는 바지, 끝단을 잘라 입은 바지, 힙합스타일의 바지, 또한 채플린형 구두, 신사형 구두, 색있는 구두, 레이어드 컷트, 목걸이 등은 금지시키므로서(허정아, 1997), 교복처럼 일정한 기준의 범위 안에서의 자유복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자유복은 일정한 제한 하의 '또 다른 형태의 교복착용'으로 비쳐졌던 것 같다. 환원하자면 교복자율화가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교복-자유복의 2분법적 대비가 명확히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행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네째, 교복은 수용소의 죄수복과 군대의 군복처럼 하루종일 입는 옷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교복은 대략 하루의 1/3~1/2 동안에만 착용되는 옷이며, 또한 방과 후 외출시에는 72.2%에 달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교복이 아닌 자유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하루의 2/3~1/2에 해당되는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자유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강요된 교복의 영향은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 3. 착용통학복만족도와 성격변인의 관계

착용통학복만족도와 창의성, 개성, 동조성, 자기효

〈표 6〉 교복착용여부에 따른 착용통학복 만족도

구 분	교복착용학생			자유복착용학생			t 값	유의도
	M	SD	case	M	SD	case		
전체학생	2.9085	(1.14)	/317	3.3127	(1.13)	/307	-4.46	.000

〈표 7〉 교복착용여부와 선호통학복에 따른 착용 통학복 선호도

구 분		교복착용학생			자유복착용학생			t 값	유의도
		M	SD	case	M	SD	case		
교복선호학생	전체	3.2410	(1.06)	/195	2.7010	(1.11)	/ 97	4.04	.000
자유복선호학생	전체	1.9236	(1.02)	/ 42	3.8468	(0.94)	/111	-11.03	.000
교복자유복병행	전체	2.6125	(1.01)	/ 80	3.3061	(1.04)	/ 98	-4.48	.000

〈표 8〉 착용통학복만족도와 성격변인과의 상관관계

변인	창의성	개성	행동동조	태도동조	자기효능감	자율성	책임감	착용통학복만족
창의성	1.000							
개성	.588***	1.000						
행동동조	.011	-.010	1.000					
태도동조	-.456***	-.314***	.109*	1.000				
자기효능감	.479***	.430***	.046	-.281***	1.000			
자율성	.324***	.232***	-.025	-.236***	.594***	1.000		
책임감	.041	.066	-.018	.040	.554***	.527***	1.000	
착용통학복만족	-.029	.002	-.000	.072	.087*	.062	.100*	1.000

\*p &lt; .05    \*\*\*p &lt; .001    표본수 : 503

능감, 자율성, 책임감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앞의 연구결과는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논의 및 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인들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에서 사용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sup>1)</sup>.

먼저 창의성과 개성, 자기효능감, 자율성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창의성과 태도동조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착용통학복만족도와는 자기효능감과 책임감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율성과 자신감(자기효능감)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Barron과 Harrington(198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고, 개성주의자들은 창의성이 강하다는 Fromkin(1973)의 결과, 또한 창의성은 동조성과는 부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White와 Kernaleguen(1971)의 주장을 재입증한 결과이다. 그러나 창의성은 동조성 중 행동 동조성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조사에서 행동 동조성과 태도 동조성의 상관관계( $r=0.107$ )가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태도 동조성과 행동 동조성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비록 어떤 상황에서 태도적으로는 동조를 하더라도 행동동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개성과 자기효능감, 개성과 자율성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개성과 태도 동조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성주의자들은 자신감이 높다는 Crutchfield(1955)의 주장을 입증한 결과이며, 자기효능감은 자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박종철, 1988), 개성과 자기효능감과 자율성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개성과 동조성은 상반된 성향이라는 Crutchfield(1955)의 주장처럼 개성과 태도 동조성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태도동조성과 자기효능감, 태도동조성과 자율성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동조성과 자신감 사이에 부적 상관이 있다는 Snyder, Mischel과 Lott(196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태도동조성은 자기효능감과 의 관계처럼 자율성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율성, 자기효능감과 책임성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율성과 책임성 사이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율성에는 이미 책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자기효능감은 자율성의 전제조건이 되므로(박종철, 1988) 이 세 변인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교복자율화가 성격특성(창의성, 개성,

<sup>1)</sup> 교복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착용시의 느낌과 통학복의 상하의가 몸에 맞는 정도(fitness)도 질문하였지만 착용통학복에 대한 만족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착용통학복만족도로 연구하였다.

동조성, 자기효능감, 자율성, 책임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장기적인 교복이나 자유복의 착용은 청소년들의 성격특성(창의성, 개성, 동조성, 자기효능감, 자율성, 책임감)에 제한된 부분에서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에는 학생들의 착용복장과 선호복장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적인 예측과 다른 것이었다.

그 이유는 교복자율화 조치 이후 나타난 교복에 대한 규제완화와,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 하루에도 2/3~1/2에 해당되는 시간에 자유복을 입는다는 점 및 교복규제 하에서도 대용물을 사용하여 개성을 추구하는 행동들로 인하여 틀에 박힌 생활이 아닌 변화가 가능하고 약간의 자율적인 분위기 안에서 생활한다는 점, 현재의 교복과 자유복은 과거와 비교하면 교복의 또 다른 종류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교복의 착용이 착용자들의 성격특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와서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생각, 곧 교복과 자유복의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어떠한 교복의 형태가 학생들의 기호와 학교의 교육이념을 잘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측정도구를 달리하고, 교복과 자유복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는 서로 다른 교복 디자인의 영향력을 연구하여야만 교복-자유복의 영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단적 연구를 실시하여야만 이러한 내용들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교복자율화가 성격특성이 아닌 의복행동에 미치는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강덕구, 자기조절 학습전략훈련이 대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강소연, 창의성의 유형화와 그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교문사, (1995).
- 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1986).
- 곽영우, 교육행정의 자율과 책임, 교육학연구, 26, 40-47, (1988).
- 김경선 외 6명, 우리나라 여고생의 의복실태조사, 부학(연세대학교 가정대학), 13(3), 11-14, (1980).
- 김영인·강혜원, 여자 중, 고등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교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5(2), 13-20, (1981).
- 김윤희, 여자중학생의 교복에 관한 태도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정희, 서울시 남,녀고교생의 교복,자유복 착용에 따른 의복행동과 성역할태도의 차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종철, 한국교육의 자율성의 재조명, 교육학연구, 26(2), 7-14, (1988).
- 심소연·강혜원,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과시 및 자율육구와의 상관연구 -의복의 과시성, 유행, 교복자율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53-60, (1983).
- 오덕렬, 제 5공화국 교육치적, 문교행정, 통권 62호, 42-43, (1987).
- 이규태, 개화백경, 신태양사, (1965).
- 이상로·변창진·진위교,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 서울:중앙적성출판사, (1989).
- 이상로·변창진·진위교,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 서울:중앙적성출판사, (1994).
- 이수희, 여고생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현우·김태영, 중등학교 교복자율화에 관한 조사연구, 충북대학교 논문집, 27, 303-322, (1984).
- 전경란, 여자 중고등학교의 신교복 착용 실태, 공주대논문집, 30, 329-346, (1992).
- 전병재,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이후의 청소년 지도와 대책, 한국청소년, 한국청소년연맹, 통권 5호, 50-54, (1984).
- 전선훈, 자기효능감 및 불안과 스포츠 수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정충량, 이화팔십년사, 이대출판부, (1967).

- 조선일보, 1982년 1월 5일.
- 차정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최종인, 집단창의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 최홍자, 교복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황응연, 인성진단검사, Korean Testing Center, (1996).
- 황철수, 자율화 시책에 따른 생활지도, 문교행정, 통권 제 3호, 82, 3, 65-68, (1982).
- 허정아,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Barron, F. & Harrington, D. M., Creativity,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464-465, (1981).
- Crutchfield, R. S., Conformity and Character, *The American Psychologist*, 10, 191-198, (1955).
- Deutsch, M., & Gerard, H.,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 upon Individual Judg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629-636, (1955).
- Fromkin, H. L., The Psychology of Uniqueness : Avoidance of Similarity and Seeking of Differentness(1973). In G. B. Sproles, *Fashion :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sota : Burgess Publishing Company, 151.
- Guilford, J. P., Transformation Abilities of Function,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75-83, (1983).
- Gurel, L. M., Wilbur, J. C., & Gurel, L., Personality Correlates of Adolescent Clothing styl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4(3), 42-47, (1972).
- Horn, M. J. & Gurel, L. M.,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1).
- Karpel, M., Individuation from Fusion to Dialogue, *Family process*, 15, 65-82, (1976).
- Kiesler, C. A. & Kiesler, S. B., *Conformity, Reading*, MA : Addison-Wesley, 12-14, (1969).
- Lovelace, R. F., Stimulating Creativity through Managerial Intervention, *R & D Management*, 16, 161-174, (1986).
- Maslach, C., Stapp, J., & Santee, R. T., Individuation : Conceptual Analysis and Assess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729-738, (1985).
- Snyder, A., Mischel, W., & Lott, B., Value, Information, and Conformit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28, 333-342, (1960).
- Strutton, D, Pelton, L. E., & Lumpkin, J. R., Sex Difference in Ingratiation Behavior : An Investigation of Influence Tactics in the Salesperson-Customer Dyad,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4, 35-45, (1995).
- Taylor, L. C., *Conformity in Dress and Selected Color, Design, Texture and Personality Variables*, Utah State University, Master's thesis, (1967).
- Vealey, R. S.,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221-246, (1986).
- Weinberg, R. S., Gould, D., Yukelson, D., Jacson, A., The Effect of Pre-Existing and Manipulated Self-Efficacy on Competitive Muscular Endurance Task,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45-354, (1981).
- White, B. & Kernaleguen, A., Comparison of Selected Perceptual and Personality Variables among College Women Deviant and Non-Deviant in their Appearanc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32, 87-92, (1971).
- Wiesenthal, D. L., Endler, N. S., Coward, T. R., & Edwards, J., Reversibility of Relative Competence as a Determinant of Conformity Across Different Perceptual Tasks,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7, 35-43, (1976).